

국힘 징계 마치고 최고위 재개 “설화로 심려 끼쳐 송구”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징계 결정 내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 후임 선출 절차 진행

11일 국민의힘이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전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설화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고위를 재가동한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 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며 각종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조처가 미온적임을 예들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전날 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 “유능한 집권당의 모습으로 힘있게 일해야 할 때, 국민 눈높이에 걸여질 말과 행동으로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라 할지라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어제 당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에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얼마나 엄격하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때”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정당의 길에 매진할 것임을 다시금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두 차례 최고위를 개최하지만, 윤리위 징계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일과 8일에는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태 의원이 전날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내주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를 구성하는 등 후임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까지로,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보궐선거는 당헌상 의무 규정”이라며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방법,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 한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전달식’을 마친 뒤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자리가 정돈될 동안 잠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창군 수준 변화 필요…北 압도할 강군 만들어 달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주제

김관진 전 장관 혁신위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

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

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조정 및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북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

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 권도 신설됐다.

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2주만에 4%p 올라 36%

NBS…내년총선 여·야 지지 ‘팽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p 내렸다.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5%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서’(19%),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16%)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가 그다음이었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48%로 ‘부정적’이라는 대답(44%)을 앞선 반면,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2%로 ‘긍정적’이라는 답변(38%)을 앞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 말에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44%)과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43%)이 팽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로 앞선 조사보다 1%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p 하락한 2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